

# 백제 부흥 운동

## 나라를 되찾기 위한 백제인의 저항

660년(의자왕 20) ~ 663년(풍왕 4)



예산 임존성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 1 개요

660년 백제는 나당연합군의 공세를 막지 못하고 의자왕(義慈王)이 항복하면서 멸망하였다. 그 뒤 백제 유민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약 4년에 걸쳐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갔다. 한때 백제부흥군은 나당연합군을 고립시키고 백제 왕자 풍(豊)을 왕으로 옹립하면서 기사회생하는 듯하였으나 지도층의 내분으로 인해 결국 부흥운동은 실패하고 만다.

### 2 의자왕의 항복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백제인의 저항

백제는 660년 동서 양 방면으로 침공해오는 신라와 당(唐)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백제의 멸망과정에 대해서는 각 기록마다 약간의 편차가 존재하지만, 대체로 갑작스런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당황한 의자왕이 도성인 사비(泗水 : 지금의 부여)를 벗어나 웅진성(熊津城 : 지금의 공주)으로 피신하였다가 당시 웅진을 지키고 있던 웅진방령(熊津方領) 예식(禪植)의 배반으로 사비도성으로 잡혀와 항복하였다고 보고 있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관련사료](#)

이는 당의 군대가 백제를 향해 출병한 지 약 한 달 여 만의 일로, 백제의 지배층은 이렇다 할 저항조차 못해보고 순식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당은 멸망한 백제 땅에 도독부(都督府)를 설치하고 백제를 직접 다스리고자 하였다. 이때 백제 고위 지배층과는 대조적으로 지방의 귀족과 유민(遺民)들은 신라와 당으로부터 백제를 되찾기 위해 거센 저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대개 전근대국가의 경우 그 멸망 시점을 도성이 함락되고 왕실의 지배력이 붕괴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왕이 항복한 660년을 백제의 멸망 시점으로 보고 있지만, 한 나라의 멸망과 그 영역 전체에 대한 완전한 점령은 또 다른 문제이다. 백제 멸망 이후로도 백제 전역을 장악하고자 하는 나당연합군과 이를 저지하려는 백제부흥군 간의 싸움이 장장 4년에 걸쳐 전개되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제 유민의 길고도 끈질긴 저항의 과정이었다.

왕이 사로잡혔음에도 백제의 유민들은 지방 각지의 성을 차지하고 버티며 나당연합군에 저항하였다. 남창성(南峯城)과 정현성(貞峴城)을 비롯하여, 좌평(佐平) 정무(正武)는 두시원악(豆尸原嶽)에서, [관련사료](#) 달솔(達率) 여자진(餘自進)은 중부 구마노리성(中部久麻怒利城)에서, [관련사료](#) 흑치상지(黑齒常之)는 임존산(任存山)에서, [관련사료](#) 무왕의 조카 복신(福信)은 승려 도침(道琛)과